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김영옥
		본원		객원연구원		마경희
		본원		위촉연구원		박수연
		계명대학		교수		윤영진
		계명대학		교수		김은정
		이화여대		교수		박정수
		심상정의원실		보좌관		오진아
출장기간	- 6/24- 6/26 - 6/27- 7/1		출장지	- 오스트리아 빈 -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목적	①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조사 (재정부와의 협력구조 파악에 초점) ②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각국 전문가 발굴 ③ 3개년 사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④ 한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경비부담	우리원 부담 (기본연구사업비) (약 25,000천원)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협의사항		
오스트리아	- City of Vienna의 Ms. Hlavac Andrea - Ministry of Finance의 Dr. Steger, Ms. Veronika Meszarits - Austrian Federal Chancellery의 Dr. Klatzer			- 제도화 수준(법, 명령, 계획, 보고서, 시범사업, 세미나 개최, 공무원 교육 등) - 도입과정(담당기구의 특성, 제도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파트너십) - 제도 시행의 효과(성과와 한계) - 성인지 예산지침, 예산서 등 정책도구 자료 협조요청		
스웨덴	- Ministry of Finance의 Director (Mr) Joakim Hussenius - Ministry of Integration & Gender Equality의 Anna Sandquist - Nordic Council의 Catharina Schmitz -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의 Jonas Eriksson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7. 9.

출 장 복 명 자 : 김 영 옥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조사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Gender Budgeting in Austria and Sweden)

2007. 7. 9

보고자 : 김 영 옥
인적자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회의명 :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조사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Gender Budgeting in Austria and Sweden

2. 회의배경 및 목적

가. “성 인지 예산 분석기법 개발 및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임

나.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조사

(재정부와의 협력구조 파악에 초점)

나.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각국 전문가 발굴

다. 3개년 사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라. 한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3. 참가자 규모: 총 7명

가. 본원의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마경희 객원연구원, 박수연 위촉연구원

나. 중기재정계획팀의 윤영진 교수(계명대), 김은정교수(계명대), 박정수 교수

(이화여대) 및 오진아보좌관(심상정의원실)

4. 회의일정

가. 기간 및 장소 :

- 6/24- 6/26: 오스트리아 빈

- 6/27- 7/1: 스웨덴 스톡홀름

나. 일정

6/24(일)	인천공항 출발 09:55 오스트리아 빈 도착 21:15
6/25(월)	City of Vienna Ministry of Finance Austrian Federal Chancellery
6/26(화)	- 연구진 및 출장자 간담회 및 평가세미나 오스트리아 빈 출발 20:55, 스웨덴 스톡홀름 도착 23:15
6/27(수)	Ministry of Finance Budget Department Ministry of Integration & Gender Equality
6/28(목)	Nordic Council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
6/29(금)	- 연구진 및 출장자 간담회 및 평가세미나 스톡홀름 출발 19:15, 파리 도착 21:55
6/30(토)-7/1(일)	파리 출발 13:15, 인천 도착 06:55

5. 주요내용

가. 오스트리아 빈 시청 방문

면담 날짜: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면담 시간: 오전 10시-11시 30분

면담 기관: 오스트리아 빈 시청

면담 장소: MA 5, Volksgartenstrabe 3, second floor, Room Nr. 343

면담자: Ms. Andrea Hlavac(재정국 예산담당관), Anita Malir(홍보담당관)

▶ 빈 시 행정 구조에 대하여

비엔나 시 9개 부서: 각 부서가 자체 예산을 보유, 한 명의 장관이 더 추가되었음

1. TD: 새로 생긴 부서- 행정 디렉션

2. F 재정

3. P 인사

4. G 건강, 보건

5. U 환경

6. S 도시계획, 교통

7. W 주택

8. K 문화

9. C 청소년 교육

빈 시 예산은 80억 유로이며 9개 부처에 분배됨.

빈 시 예산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목적사업비(건강 혹은 복지)로 나뉨. 성 인지 예산분석은 목적사업예산에 적용되고, 인건비와 경상운영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음. 시청 공무원의 남녀 비율은 일반적으로 50대 50. 고위직으로 갈 수록 여성의 비중이 낮아져 전체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은 1/3임. 시장은 남성, 부시장은 여성, 재정 담당도 여성임. 빈 시청법에는 여성 우대법(자격이 같다면 여성을 채용)이 있음.

▶ 성 인지 예산분석 현황과 담당자

Gender 시각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아닌지 230개 예산을 모두 살펴 봄. 9개 부서에 모두 예산 코디네이터가 존재(예산 코디네이터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들은 이미 이 부분에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임). 따라서 재정 담당관 자신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 예산 코디네이터와 함께 일하며, 비용 분석을 함. 빈에서는 젠더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음(게토화의 문제 때문). 모든 일반 공무원이 성 주류화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젠더 전담자는 없음.

각 부서 예산 담당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예산을 작성하고, 이것을 Andrea(재정국 예산담당관)가 검토한 후 피드백을 줌.

▶ 성 인지 예산분석(시범분석)의 성과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임. 투명성: 예산을 분배할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 인지 예산분석을 통해 균형을 잡을 수 있음. 효율성: 예산절약이 가능함. 빈에서는 현재 저학력 남성 실업률이 높음.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사용함으로

써 예산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예컨대 간호, 돌봄 문제에 남성들이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간호사 자리에 실업자 남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함.

▶ 시의 중장기 재정계획(3-5년)에 대한 젠더분석 또는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

빈 시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3년마다 연방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분배받는가의 문제로 9개 연방의 재무 부서에서 항상 다툼이 있음. 정당이 바뀔 때마다 빈 시가 영향을 많이 받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빈은 이민자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치원도 늘어나고 있음. 유치원의 증가에 따라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 현재 인구가 170만명까지 증가하였음. 현재의 시급한 현안은 건강과 노인 돌봄 문제임. 현재 세대는 괜찮지만, 본인이 늙었을 때는 돌봐줄 세대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빈 시의 문제임.

▶ 성 인지 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 인지도

빈에서도 gender budget이란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임.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나이든 공무원의 경우는 확실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들으려고 하지 않음. 내부적으로 “biologic 혁신”이란 말을 만들어 냈어야 할 정도였음. 항상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음. 여성 장려 정책과 성 주류화 정책을 비교하자면, 전자는 항상 여성을 고려하는 것인 반면 성 주류화는 양성 즉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여성을 비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성별에 따라 돌봄 노동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현재의 목적임.

▶ 80억 예산 중 Gender specific budget의 비중은 얼마이며,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모든 예산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 특수적 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봄. 젠더 예산은 모든 센트 하나하나에 gender perspective가 들어가야 함. 하수구 만드는 작업만 단 하나의 예외임. 상수도 식수에는 들어감. midwest라는 한국의 경기도와 같은 연방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미네랄 워터를 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gender를 개입시킴.

나. 오스트리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방문

면담 날짜: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면담 시간: 12시 30분-1시 30분

면담 기관: 오스트리아 재정부

면담 장소: Hintere Zollamtsstraße 2b, 1030 Vienna, Room 5H19 (5th floor, Wing "H", room no. 19)

면담자: Dr. Steger, Ms 플리츠 (젠더 담당자), Ms Veronika Meszarits

▶ 오스트리아의 성인지 예산 개념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 차원 뿐 아닌 지방 차원에서도 공공 가게 예산을 양성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성 인지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음. 성 인지 예산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년 내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함.

▶ 성 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

2000년 내각 회의에서 부서마다 젠더를 도입하도록 의결했음. 세금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이라는 점에서 세금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음. 2002년에 “오스트리아 조세 제도: 젠더 중립이라는 부제”의 연구가 있었음. 2004-2005년 조세 개혁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소득세와 임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음. 소득세와 근로 소득세에서 보면 여성들의 기여도가 낮았음. 이는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낮음을 의미함. 따라서 고액의 세금에 대한 감면은 남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봄. 남성들이 세금 부과에서 이익도 많았음. 조세 개혁을 통해서 저소득층 여성들의 소득이 증가함. “2006 소득 과세가 정말 성 중립적인가?” 라는 연구를 했음. 세입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재정부가 일단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임. 지출은 개별 부처에서 하는 것임.

▶ 젠더 시험(gender proof)과 사전 평가에서 여성부가 아니라 재무부가 명령을 내린 이유
재무부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물론 여성부와의 협의를 거쳤음.

▶ 한국에서 GB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음.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떠한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함. 스포츠를 예로 들자. 오스트리아는 축구 스포츠에 예산을 많이 쓰는데, 축구는 남성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스포츠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부서마다, 사업별로 GB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함. 때로 형식적인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 경우 국회에서 지적됨. 제대로 하지 않은 부처가 크게 비난받은 사례가 있었음. 오스트리아에서는 성 인지 예산분석이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정치가의 역할이 중요함. 법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재정부에서 GB분석을 명하였고 모든 부서가 따르고 있음.

▶ 성 인지 예산서에 대하여

GB statement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서 서술형임. GB는 모든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정량화하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임. 지금까지 많은 시범 사업이 있었지만, 기초 데이터가 없었던 것은 다 실패했었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토론과 결정이 가능. 따라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모든 장관부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데이터를 만든 게 1차적 사업이었음. 또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함. 공무원들이 하긴 했지만, 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한 것인지, 억지로 한 것인지 드러남.

다. 오스트리아 수상청 방문

면담 날짜: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면담 시간: 오후 2시-3시 30분

면담 기관: 오스트리아 수상청(Federal Chancellery)

면담 장소: Bundeskanzleramt, Ballhausplatz 2, meeting room HP 61a

면담자: Elisabeth Klatzer(Gender Mainstreaming counselor)외 1인

▶ 성인지 예산의 개념화

오스트리아도 여전히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음. 성 인지 예산은 gender audit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님.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GB의 일부로 이해해야 함. GB는 예산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임. 해외 사례를 보면 Incidence analysis가 대다수임. 하지만 이는 더 발전되기는 어려운 방법론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되 거기 머무르지는 말라.

▶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가을에 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가 될 것임. 그러나 모든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젠더 분석을 하고 있고, 문서로 매년 제출함.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수준이므로 아직은 서술에 그치는 수준임.

▶ 예산 편성을 위한 별도의 지침서가 있는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산편성 지침이 가을쯤 작성될 예정임. 초안은 7월에 나올 것임. 'How to implement GB in federal level'

▶ 여성부와 재정부 사이의 파트너십

여성부는 수상청에 위치함. 따라서 수상청과 굉장히 가깝게 일하고 있음. 여성부와 재정부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함.

▶ GB의 필요성에 관한 답변은 small example과 시범 사업을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음.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income taxation을 사용했음. 사례: Negative income tax(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사회 복지 사업으로 돈을 더 받게 되는 경우), 연금 개혁(enlarging the number of year), public funding for sports, funding for music for children(성별 약기 차이)

라. 스웨덴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방문

면담 날짜: 2007년 6월 27일 수요일

면담 시간: 오전 10시-11시 30분

면담 기관: 스웨덴 재정부

면담 장소: Drottninggatan 21

면담자: Mr Hussenius

▶ 재정부 조직과 역할

재정부 내 Budget department가 가장 큰 부서인데, 본인은 Economic Affairs에서 일하고 있음. Economic Affairs 아래 3개의 divisions 중 Income Distribution Division에서 일하며, 새로운 정책 도입시 Consequence analysis (impact analysis나 performance analysis등과 같음)를 수행함. 예컨대 아동수당의 변화시 미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영향평가를 함.

▶ 소득분배 분석 사례

실업급여의 변화 ⇒ "Single mother will work more and longer" 이 정책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single mother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봄. 이전에는 독신모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 급여나 사회 보장비를 받는 것이 일하는 소득보다 높았음. 하지만 이 계획에 따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많아짐으로써 싱글 맘들이 더 긴 시간을 일하게 됨. 이러한 제도는 사실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중산층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임.

▶ gender budgeting에 대한 이해

이미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산된 개념임. 모든 분석에 젠더관점이 통합되는 것.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상당수의 프로그램이나 분석들이 젠더 관점을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음

마. 스웨덴 Ministry of Integration & Gender Equality 방문

면담 날짜: 2007년 6월 27일 수요일

면담 시간: 오후 1시-3시 30분

면담 기관: 스웨덴 Ministry of Gender Integration

면담 장소: Fredsgatan 8, 103 33 Stockholm, Sweden

면담자: Ms Anna-Marie Sandquist (Program Manager in the Gender Equality Division), Mr Christer Norling (GB Coordinator in Finance of Ministry)

▶ 스웨덴 성평등 정책의 역사와 성 주류화 현황

스웨덴에서는 1974년 개별과세로의 세제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성평등을 위한 가장 큰 변화의 하나였음. 1994년 성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했는데, GM이란 용어만 새로운 것이며 개념은 이미 있었음. 1950년대까지는 전쟁의 문제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가 1960년대부터 여성 문제에 스웨덴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 2006년 9월에 새로 들어온 정부는 여전히 노동문제에 큰 관심 가지고 있음. GM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각성 아래 Gender perspective가 정부, 지방, NGO 모든 차원에서 통합되고, 성분리 통계, 공무원 훈련이 1994년부터 시행됨. "tool" 개발을 위해 건설부, 지역개발, 사회복지 세 정책영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함("Gender Mainstreaming in Government Office"). 요즘은 2004년과 비교해서 공무원의 GB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늘어나서, 2006년 9월 정부가 우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멈추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 Result based management

모든 정부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61%) 성별 분리되어 있음. 그리고 성평등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목표는 100%까지 가는 것임. 스웨덴에서는 특별한 젠더 전문가 보다는 훈련받은 일반인 공무원들이 이 작업을 함. 각 부처에 젠더 코디네이터들이 있음.

▶ Gender equality analysis와 성분석(gender analysis)과의 차이

조건의 단순한 차이를 보는 것이 성 분석임. 사실 여기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legitimacy, 정치력을 부여하여 이로부터 받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성평등 분석임. 현재 48개 분야에서 120개 사례에 대한 성평등 분석이 있는데 그 수준은 다양함. 각 부처는 자발적으로 사례를 선정하는데, Sector priority를 부여하려고 함.

▶ Gender Equality Division의 역할

모든 부처의 성평등 분석과 젠더 이슈에 대한 자문 역할. 또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 중 하나임.

▶ 성평등 분석 사례

1)북 스웨덴에는 남성의 실업률이 높음과 동시에 노인돌봄 일자리 수요가 높음. 하지만 돌봄노동을 남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들지 않음. 따라서 여기에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 2)여성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해 남성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음. 일을 그만둔다거나, 파트타임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웨덴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GEA, GB에 대한 Political requirement가 형성되어 있음.

바. 스웨덴 Institute of Public Management 방문 (For Nordic Council Project on GB)

면담 날짜: 2007년 6월 28일 목요일

면담 시간: 오전 10시-11시

면담 기관: 스웨덴 Institute of Public Management

면담 장소: Kungsbor Plan 15 112 26 Stockholm/ IPM and Niras on the door

면담자: Catharina Schumitz (Nordic Council의 Project Manager, 1993년부터 Development 문제를 다루고 있음. 몰디바에서 세계은행과 함께 GB 사업을 도우고 있음. UNIFEM과도 연관성이 높음. SIDA, 세계은행과도 일해 왔음)

▶ Nordic Council은 Nordic 국가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며, 노르딕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GB 같은 새로운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룸. 노르딕 카운슬이 프로젝트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노르딕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적용함. 1952년에 설립.

▶ 북유럽 국가들의 성 인지 예산 시행 현황

- 1) Bring it into the result based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management: 그간 시스템은 생겼지만, 사실 실행이 잘 되지 않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 2) 지난 20년간 Gender Unit, Gender Experts를 사용해서 일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음. 이제 방향을 바꿔 일반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도록 함.
- 3) 여성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와 예산 분야를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젠더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GB의 목적임

▶ 사례: 남녀는 공공 교통수단의 이용행태가 다르다. 남자들은 운전을 하고 좀 더 먼 거리를 이동. 출퇴근 이동이 많음. 여성의 경우는 좀 더 단거리 지역 내 이동이 많음. 가정적인 이유로 이동. 음식을 사기 위해서라든가 아이들 학교라든가 그래서 좀 더 근거리로만 이동. 따라서 남자들이 좀 더 자동차로 도로를 사용하고 여자들이 좀 더 공공 교통수단을 사용함. 따라서 공공 교통수단은 근거리용이 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

▶ 중앙과 지방의 관계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딕 국가들의 체계는 Ministries ->(Agencies) -> County -> Municipality이다. 정부 부처의 역할은 법제 마련, 정책수립으로서 Law, Regulation/ Budgetary document 같은 regulatory document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함. (Agencies) County와 Municipal 영역에서는

정책수행 및 서비스 제공으로서 Analysis, Objective, Report, Follow up 등이 벌어짐.

▶ Public Agency와 Ministry Division의 관계

스웨덴에서는 Ministry가 State agency (Health, Pension Agency)에게 Instruction을 내림. 하지만, 일단 그게 내려오면, 실행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state agency의 대표가 지게 됨. 그 아래로 county와 Municipalities가 존재하는데 이들도 instruction을 따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임.

▶ 북유럽 국가의 GB에 대한 3개년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국가별로 미묘한 차이는 정치적 의지의 여부, 집권정당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되는 듯함. political will이 없으면 실행되기는 정말 어려움.

▶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GB 분석에 대한 평가

모든 분석이 다 좋은 분석은 아님. 아이슬란드의 분석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 연금 분석사례에서 영향을 미친 많은 요소들을 다 볼 줄 알아야 함. 예를들면 여자들이 더 많이 아파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자. 그럼 여자들이 그로 인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만을 보지 말고, 왜 여자들이 더 많이 아프지를 볼 줄 알아야 함. 가족, 스트레스, 일, 이런 분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좋은 분석.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GB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국가에 따라 접근법은 달라야 함. 노르딕 같은 경우는 이미 양성 평등의 개념이 자리잡혀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며 실무, 기본서비스 차원에 집중함. 일테면 하나의 학교라던가. 하지만 몰디브의 경우는 gender perspective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whole economic sector를 다룬다던가 하는 좀 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사. 스웨덴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y and Region

면담 날짜: 2007년 6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2시 30분

면담 기관: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y and Region

면담 장소: Horsgatan 20 Stockholm

면담자: Jonas Erickson, Frederick

▶ 기관소개

본 기관은 County Council과 Municipal council를 위해 연구하고 자문,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까지 스웨덴에는 양성 평등에 관한 200개나 넘는 도구들과 방법들이 개발되었음. 이 기관은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municipal 기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자료를 제공해주며, 명령을 하지는 않음.

▶ Equal right = Equal obligation, 양성평등은 자주 정치적 문제이며, 행정적 문제이며, 법적 문제이며, 개인적인 문제.

▶ 최근 수행한 “생애주기별로 남녀의 시간사용 실태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서 여자의 시간사용은 dramatic하게 변동. 또한 스웨덴의

유치원은 상당부분이 공공시설이며 교사가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결과,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전통적으로는 항상 엄마를 먼저 부름. 75%가 엄마였고 25%가 아빠임. 이에 앞으로는 유치원에서 엄마 대신 아빠를 부르기로 함. 처음에는 당황하던 아빠들이 나중에는 변하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엄마 한 명만이 아이 일에 involve 되는 것보다 두 부모가 모두 involve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유치원의 Morning Assemblies 활동 분석사례

모든 유치원에는 45분가량 이 시간을 가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불평사항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활동을 함. 여기에서 보면, 남아와 여아를 대하는 유치원 선생님의 태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 이 분석은 이 Morning Assemblies를 비디오로 촬영한 후 한 Analysis임. 여아들도 practical한 면에서 코멘트를 들어야 하고, 남아들도 관계나 sympathy나 solidarity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함.

▶ special project on gender budgeting에 관한 자료(스웨덴어) 제공.

6. 참가자 역할

- 가. 방문기관 및 방문인사 선정, 섭외
- 나. 기관방문과 전문가 면담시 논의
- 다. 기관 및 전문가와 네트워킹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라. 관련자료 문의 및 수집
- 마. 한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홍보

7. 방문 성과

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습득

본 출장목적은 성 인지 예산 제도화 사례 연구에 두고 특히 재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 과제의 중기재정팀이 합류하였음.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현지방문과 관련자와의 논의를 통해 ‘성 인지 예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었음. 특히 오랜 성평등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각료회의의 성 인지 예산 프로젝트 매니저와 스웨덴 여성부 공무원과의 회의는 연구진 모두에게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음.

나. 성 인지 예산의 개념화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진들간 폭넓은 공감대 형성

각 기관을 방문한 직후 출장자간에 간담회와 평가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선진국 경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들의 경험의 시사점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음. 토론을 통해 성 인지 예산의 개념화와 제도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음. 또한 성 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고 특히 정치권의 후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음. 이와 관련하여 오진

아보좌관은 국회의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해 정리하는 성과가 있었음.

다. 다양한 실용적 자료 수집

출장 전 방문국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청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대부분 수집할 수 있었음. 또한 방문국 담당자와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음. 방문국으로부터의 수집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 오스트리아 수집자료

방문부처	자료명
비엔나 시청	City of Vienna(2006), <i>Vienna in Figures: Special Issue for the EU Presidency 2006</i> . (Eng)
재정부	1 (2006), <i>Bundesgesetzblatt fur die republic osterreich</i> . (German) 2 <i>Is Austrian Income Taxation Gender-Neutral?</i> 3 BMF(2007), <i>Bundesfinanzgesetz 2007</i> . (German) 4. Elisabeth Klatzer, Michaela Neumayr(2006), <i>Materialien zu Wirtschaft und Gesellschaft: Gender Budgeting in Europa</i> . AK Wien. (Eng, German) 5. (2005), <i>Zum Frauenforderungsplan gema 11a B-GIBG fur das Bundesministerium fur Finanzen</i> . Bundesministerium fur Finanzen. (German) 6. WIFO, <i>Handreichungen fur Gender-Prufungen im Bundesministerium fur Finanzen</i> . (German) 7. Gudrun Biffl, Elisabeth Klatzer, Margit Schratzenstaller(2006), <i>Osterreichi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i> . WIFO (German) 8. BMF(2007), <i>Bundesfinanzgesetz 2007: Arbeitsbehelf</i> . (German) 9. BMF(2007), <i>Bundesfinanzgesetz 2007: Bundesfinanzgesetz (BFG)</i> . (German) 10. BMF(2006), <i>Ist die Einkommensbesteuerung geschlechts-neutral?</i> (German)
여성부	1 <i>Gender Budgeting in der Bundesverwaltung</i>

* 스웨덴 수집자료

방문부처	자료명
재정부	
여성부	<p>1 <i>Moving Ahead: The Organisation of Gender Equality Work in Sweden</i></p> <p>2 Regeringskansliet. <i>Moving Ahead: Gender budgeting in Sweden</i>.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 (Eng)</p> <p>3 <i>Attachment to the Budget Bill 2006, 2007</i></p> <p>4 Swedish Government Office(2007), <i>Gender Msinstreaming Manual: A Bool of practical methods from the Swedish Gender Mainstreaming Support Committee(JamStod), Swedich Government Official Reports</i></p> <p>5 Swedish Government Office(2007), <i>Gender Equality in Public Services, Swedich Government Official Reports</i></p> <p>6 Statistics Sweden(2006), <i>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2006</i>. (Eng)</p> <p>7 Konsuppdela Statistiska</p>
Nordic Council	<p>1 Schmitz, Catharina(2006), <i>Now It's About the Money: Mainstreaming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to Nordic national budgets Final project report 2004-2006</i>. 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 (Eng)</p> <p>2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06), <i>Part Report: Gender Budgeting-Integration of a Gender perspective in the budgetary process, Country Report</i></p> <p>3 Nordic Council of Ministers(2005), <i>Jamstallda Statsfinanser/Equality and public finance</i>. (Eng and Swedish)</p>
the swedish associations of local authority	<p>1 <i>Just Progress! Applying gender mainstreaming in Sweden</i></p> <p>2 Svenska Kommunförbundet(2002), <i>Active Work for Gender Equality</i>.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Employer Policy Section.</p> <p>3. REGION VASTRA GOTLAND, <i>Pathways to gender budgeting</i></p>

라. 한국의 성 인지 예산 현황에 대한 홍보효과

출장 전 한국의 성 인지 예산 현황에 대한 영문 홍보자료를 작성하였고, 방문국의 면담자들에게 이를 배포하였음. 면담자들은 한국의 법적 제도화 수준 및 본 연구과제에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표명했음. 많은 국가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지역 내 한국의 현황에 대한 일정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었음.

마. 유럽 성 인지 예산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마련

출장자들이 방문한 기관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 성 인지 예산 제도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럽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임. 현지방문을 통한 이들과의 접촉은 향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적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이들은 향후에도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접국가의 전문가와 연계시켜 주는 등 우리의 연구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연구기간 동안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8. 과정평가 및 제언

가. 3일간의 출장기간 중(나머지 기간은 이동기간임) 총 7개의 기관을 방문하고 총 14명의 전문가와 만나는 풍성한 결과를 남음(오스트리아 3개 기관 및 7명의 전문가, 스웨덴의 4개 기관 및 7명의 전문가).

나. 이는 사전에 각 기관의 방문날짜를 협의·확정하고 주요 논의 및 질문내용을 보내는 등 준비가 철저한 때문으로 사료됨.

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현지통역원이 필요함. 유능한 현지 통역원을 고용한 것도 출장 성공의 중요한 한 요인이라 판단됨.

라. 출장비의 현실화가 요구됨. 이번 방문국중 특히 스웨덴의 경우 숙박비, 대중교통요금 등의 물가가 비싸 본원이 지급한 출장비 외 추가비용을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했음. 따라서 출장지역을 세분화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고, 현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출장경비의 증가를 고려해야 함. 또한 출장자의 직급에 따라 출장기간내 역할이 다른 만큼 출장비의 적절한 조정을 제안함.

9. 참가자 리스트,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이름, 기관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등)

City of Vienna 10:00 MA 5, Volksgartenstraße 3, second floor, Room Nr. 343	Peter Pokay pok@m05.magwien.gv.at Hlavac Andrea hla@m05.magwien.gv.at Malik Andrea andrea.malik@fsw.at + 43 1 4000 88629
Ministry of Finance 시간: 13:30-14:00 장소: Hintere Zollamtsstra//e 2b, 1030 Vienna, Room 5H19 (5th floor, Wing "H", room no. 19)	Dr. Steger/ Veronika Meszarits Phone: + 43 1 514 33 502003 Mobile: + 43 664 816 15 87
Austrian Federal Chancellery 시간: 14:00-15:00 장소: Bundeskanzleramt, Ballhausplatz 2, meeting room HP 61a	Klatzer, Elisabeth (GB Expert/ GM Councillor, researcher) Address: Austrian Federal Chancellery Dpt. IV/5 - European Integration Gender Mainstreaming Councillor Ballhausplatz 2 1014 Vienna Phone.: + 43 1 53115/2307 Mobile: + 43 650 505 0565/+ 43 22 3686 9869 Fax: + 43 1 53115/4313 Email: eklat@gmx.at
Ministry of Finance Budget Department 시간: AM 10.00-10.30	Director (Mr) Joakim Hussenius Phone: + 46 8 405 1000 Drottninggatan 21 (# 16 on the map)
Ministry of Gender Integration 시간: PM 1:00-3:00	Mr Christer Norling (Gender Budgting/ International Affairs) Address: Fredsgatan 8, 103 33 Stockholm Phone: + 46 8 405 26 99 9 (# 7 on the map) Mobile: + 46 70 366 0 396 Email: christer. norling@integration.se Ms. Anna Sandquist
Nordic Council 시간: AM 10:00	Catharina Schmitz (Norden 2006 연구 책임자) Managing Director, Institute of Public Management Kungsbro Strand 15 112 26 Stockholm Phone: + 46 8 545 53320(6) Mobile: + 46 70 768 4583 Fax: + 46 8 668 8385 Email: catharina. schmitz@publicmanagement.s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 시간: AM 13:00	Jonas Eriksson/ + 46 8 452 70 00